

세계정당연대의 원상복합인 공포스포츠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당첨후환영I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체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베이징 화려한 불꽃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에서 지난 16일 밤 폭죽소리와 함께 개막식 리허설이 실시되면서 개막식 행사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막식 행사 총감독인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은 이날 공연 등 행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나오차오(鳥巢·새둥지) 주변을 완전 차단한 가운데 제2차 개막식 리허설을 실시했다.

공연들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나오차오 주변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소재로 다룬 중국영화 '상감령(上甘嶺)'의 주제가 '나의 조국(我的祖國)'이 가장 먼저 울려 퍼졌다. 특히 이번 리허설에서는 차이귀창(蔡國強) 감독이 제작한 불꽃놀이 리허설이 처음으로 열려 베이징 시내 밤하늘이 요란한 폭죽소리와 화려한 불꽃으로 장식됐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리허설에서는 또 올림픽 주제가와 울동 공연, 중국 전통무술인 쿵후 시범공연, 중국의 각종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공연 연습이 실시됐다.

8월 8일 밤 8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진행되는 베이징올림픽 개

“쉿! 말하면 다쳐”



보완 속 베이징올림픽 개막 리허설
개막식 내용 누설하면 징역 7년형

마식은 대표 치사와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등 일반행사 외에도 개막식 공연이 1부와 2부로 나눠 50분동안 진행된다.

전 세계 관중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이머우 감독이 이번에 올림픽 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점화할 것인지와 50분동안 진행될 개막식 공연의 내용 등 2가지다. 그러나 세계 각지

로부터 거둬들인 아이들 수만명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비밀에 가려져 있으며 내용을 공개하면 징역 7년형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개막식 공연에 참석하고 있는 공연단 1만명과 리허설과 관련이 있는 수 많은 참석자들은 “이번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공연

▲ 지난 16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된 새둥지 모양의 주경기장 귀자티위칭(國家體育場)에서 화려한 불꽃이 피어 올라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개막식의 하이 라이트인 성화 주자와 점화방식, 축하 공연 등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연합뉴스

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봉황으로 결정됐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새둥지를 닮은 올림픽 주경기장의 상공에서 봉황이 내려와 성화를 점화하고 불사조로 부활하며 화려한 불꽃으로 추제를 즐긴다는 내용의 점화 스토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올림픽 성화대에 불을 붙일 마지막 성화 주자로는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농구스타 야오밍(姚明)이나 중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쉬하이펑(許海峰)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개막행사를 위해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장이머우 총감독에게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1억달러의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왕’ 부담 벗어라

이용규 타격 상위권 불구 최근 컨디션 난조 ‘속알이’



KIA 타이거즈의 톱 타자 이용규(사진)가 ‘최다 안타왕’을 향해 방망이를 재조준했다. 이용규는 16일 현재 83게임에 나서 106개의 안타를 제조해 최다 안타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KIA의 ‘투고타저(投高打低)’불균형 속에서 이용규는 타격부문에서 골고루 상위에 랭크돼 팀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3루타도 5개를 때려내 1위다. 타율 0.315(10위), 2루타 19개(4위), 득점(7위), 도루(6위) 등 이용규는 테이블 세터로 손색없는 성적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용규의 몸놀림이 심상치 않다. 고공행진을 하던 이용규는 지난 15일까지 5경기에서 20타수 2안타로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앞선 7월 초반 평균 6.14의 득점력을 과시하며 불을 뿜던 팀 타선도 테이블 세터 이용규의 부진과 맞물려 16일 현재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점까지 푹 떨어졌다. 최다 안타부문에서도 2위 김현수(두산·105개)가 1개 차로 바짝 쫓고 있어 ‘안타왕’ 지킴기에 비상이 걸렸다. 최다안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용규는 지난 1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타석에 서지 않았다.

약바리 이용규가 직접 코칭스태프에 요청해 1번 자리를 대신해 이종범에 내주고 9회 말 대타로 대수비로 들어간 게 전부였다. 그만큼 최근 이용규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용규의 최근 부진에 대해 박종식 타격코치는 심리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 코치는 “최다 안타 타이틀도 있고, 치려는 욕심이 앞서면서 선수간에 문제가 생겼다”며 “나쁜 볼에 몸이 나가면서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임팩트 때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박 코치는 올림픽 대표팀에도 합류하는 등 심적 부담도 적어진 만큼 욕심을 줄이면 최다안타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팀의 4강이 눈앞에 보이는 만큼 테이블 세터로서의 이용규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슬럼프라고 하지만 이용규는 타격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며 톱 타자의 위용을 보이고 있다. 최다 안타와 팀 4강을 쫓고 있는 이용규는 16일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타격 재점화에 나섰다. 이용규의 방망이에 7월 뜨거운 프로야구 순위경쟁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용규 타격성적 (16일 현재)

타율	0.315(10위)
안타	106개(1위)
2루타	19개(4위)
3루타	5개(1위)
득점	51(7위)
도루	23개(6위)

‘음주 폭행’ 정수근 선수생명 위기

KBO ‘무기한 실격 처분’ 철회 징계 철회 안되면 복귀 불가능

음주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정수근(롯데)이 구속은 면했지만 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수근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에서 ‘무기한 실격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KBO는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KBO 총재는 감독, 코치, 심판, 선수, 구단 임직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된 야규규약 146조2항에 의거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수근은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KBO 등록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KBO의 ‘무기한 실격선수’조치에 따라 앞선 16일 롯데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도의 미를 상실하게 됐다. 임의탈퇴의 경우 1년이 지난 뒤 구단의 복귀 요청이 있으면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지만 이번에 내려진 자격상실의 경우 KBO가 징계를 풀지 않는 이상 복귀가 불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남현우 ‘나홀로 4골’

일본전 4-2 승...결승 진출

하키 아시아주니어선수권

남자하키 청소년대표팀이 제6회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지난 16일 밤(이하 한국시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대회 5일째 일본과 준결승에서 4-2로 이겨, 파키스탄을 3-1로 물리친 인도와 18일 밤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다.

남현우(순천향대)가 전반 10분과 20분, 후반 15분과 25분에 페널티 코너로 혼자 네 골을 넣어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또 이번 대회 2회까지 주어지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 자격도 얻었다.